

琴曲을 통해 본 이민족에 대한 漢人의 집단기억과 정치이상*

유혜영**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이민족에 대한 역사기억을 노래한 금곡
 - 1) 「월상조」: 주의 덕치와 월상의 복속
 - 2) 「기산조」: 응적의 야욕과 대왕의 시련
 - 3) 「주태백」: 구오를 교화한 태백
 - 4) 「공후인」: 남편을 따라간 조선 여인
 - 5) 「곽장군도하조」: 평화를 염원한 곽거병
 - 6) 「원광사유가」: 자살을 선택한 왕소군
3. 나가는 말

【초록】

선진의 문화전통이자 양한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금곡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금곡이 기억하고자 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현실의 문제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양한 문사들은 금곡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이상과 가치관을 세상과 공유함으로써 풍속 교화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양한시기 유행한 금곡 가운데 이민족과의 역사기억을 소재로 한 6편의 금곡을 대상으로 한인의 집단기억의 실체와 정치이상의 일면을 탐색하였다. 그들은 통치하는 중국과 복속하는 이민족이라는 전통의 화하 중심적 세계관을 계승하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852)

** LAMI 인문과 예술경영 연구소 이사 (yooncho@hanmail.net)

고, 지속되는 이민족과의 불화와 잡거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대해 강박적 불안과 혐오를 드러냈다. 또한 변란을 종식하고 평화를 보장해줄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면서도 이민족에 대한 무력 통합보다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한 점진적 화하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키워드】 금곡, 이민족, 집단기억, 정치이상, 화이관, 금조

1. 들어가는 말

금곡(琴曲)은 중국의 오래된 문화전통 중 하나다. 순임금의 「남풍(南風)」, 공자가 사양자의 구박을 견디며 결국 통달한 「문왕조(文王操)」, 종자기를 백아의 지음으로 만들어 준 악곡, 이 모두가 금곡이다. 대혼란의 진한(秦漢) 교체기를 통과하며 서주(西周)의 아악(雅樂)체계는 거의 소실되었지만, 금은 오히려 팔음(八音)의 수장으로 부상하며 양한(兩漢) 문사(文士, 학문으로 입신하던 선비)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서한 말부터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음악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새로운 시가(詩歌)가 민간에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사들은 여전히 금을 수양과 소통의 도구로 여기며 금곡 연주를 즐겼다.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사들에게 금곡 연주가 개인적 취미활동 그 이상의 의미였다는 점이다.

양한 시기는 진(秦)의 강력한 무력에 의한 지리적 제도적 통일의 문제점들을 반성하며 유가적 통치이념 확립과 문화적 사회 통합 추구를 위한 유생들의 학술 및 정치 사회 활동이 두드러진 시대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법가계 관리인 도필리(刀筆吏)와 차별화하고, 기득세력에 맞서 유가 경전에 근거한 국가 통치 이념을 수립함으로써 황제와 함께 국가 운영의 주체로 활약하고자 하였다. 무제(武帝) 이후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면서 문사들은 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지만, 유가 관료 중심의 예제 국가 건설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물론 예제 국가 건설 이후에도 관료가 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설령 관료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단을 모색해야 했던 문사들의 선택을 받은 것

1) 당시 사람들은 이를 ‘신농(新弄)’이라 칭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상화가(相和歌)로 분류하던 악부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담(桓譚, 기원전23-56)은 『신론(新論)』 「離事」에서 당시 전통 금곡이 아닌 유행 음악을 즐기는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원로 인사 양웅을 대학자일지는 몰라도 음악적 조예가 없는 인물로 평가(揚子云大材而不曉音, 余頗離雅操而更為新弄, 子云曰事淺易善, 深者難識, 卿不好雅頌, 而悅鄭聲, 宜也.)했다.

이 바로 선진의 풍아(風雅) 전통을 계승한 금곡이었다. 금의 가락에 맞추어 선왕의 업적과 전통 가치를 노래했던 공자를 비롯한 선진 유생들처럼, 양한 문사들 역시 금곡을 통해 유가적 통치이념의 전파와 보급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금곡의 시대적 위상과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간파한 한유(韓愈, 768-824)는 금곡을 양한시기를 대표하는 시가형식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²⁾

그렇다면 양한 문사들이 즐겨 연주하고 감상하던 금곡은 어떤 노래였을까? 아쉽게도 곡조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 대강은 금곡의 작자와 창작배경을 기록한 금곡해제집『금조(琴操)』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금조』는 중국문학 연구자보다 한국문학 연구자에게 더 친숙한 문헌인데, 바로 우리 민족 최고의 서정시 중 하나로 알려진 「공무도하가」의 배경설명을 수록한 원전이기 때문이다.³⁾ 흥미로운 점은 『금조』에 우리 외에도 중국 주변의 다른 이민족을 소재로 한 금곡이 여러 편 있다는 사실이다. 한인들은 왜 이민족에 대한 특별한 역사기억을 노래했을까?

양한은 전국(戰國)의 지역 국가적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된 화하세계가 등장한 시기다. 이제 한은 과거를 잊고 하나의 중국으로 거듭났지만, 또 다른 이민족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한인들은 본격적으로 이민족의 역사와 생활습관을 기록하였으며, 이민족에 대한 역사기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1877-1945)는 인간의 사회활동이 항상 어떤 집단기억을 강조하여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집단기억 이론을 창시한 바 있다. 현대 역사학과 문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집단기억 이론에서 역사란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거 사실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며 나아가 현재를 사는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거를 의미한다.⁴⁾ 이후, 얀 아스만(Jan Assmann, 1938-)이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 연구에 적용했던 ‘집단기억과 문화정체성’이론은 양한 금곡 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다.⁵⁾ 왜냐하면 양한 문사들도 근대의 유럽인들처럼 정치적 집단의 정체성뿐 아니라 국가(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⁶⁾

- 2) 「薦士」: 建安能者七, 卓犖變風操. 錢仲聯 集釋, 『韓昌黎詩繫年集釋』, 上海古籍出版社, 1998, p.52
7. 「論佛骨表」를 올려 황제의 역린을 건드려 조주자사로 좌천된 한유는 양한 금곡의 소통방식을 원용하여 자신의 충정을 밝히고 선치를 호소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拙稿 「한유 <琴操十首>- 창작배경과 소통전략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83호, 2013.12, pp.209-233. 참조.
- 3) 『금조』는 편찬자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작으로 간주되면서 송대 이후 사라졌으나 청대 학자들의 노력으로 복원되었다. 대륙학자 逯欽立과 趙敏俐 등이 『금조』의 문헌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拙稿 「《琴操》의 편찬 동기와 사회문화적 가치」, 『중국문화연구』, 25집, 2014.08, pp.53-54. 王小盾·余作勝, 「从琴操版本论音乐古籍辑佚学」, 『音乐研究』, 2011年 第3期, pp.54-64.
- 4) 왕명가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2008, pp.92-114.
- 5) 오경환, 「집단 기억과 역사: 집단기억의 역사적 적용」, 『亞太 쟁점과 연구』, 2007, pp.83-104.

이에 본 논문은 과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양한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현상이자 시가형식인 금곡 중 이민족에 대한 역사기억을 노래한 작품 여섯 편을 대상으로 그 대략적 내용과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그 안에 투영된 한인들의 화이관과 정치 이상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⁷⁾

2. 이민족에 대한 역사기억을 노래한 금곡

1) 「월상조」: 주의 덕치와 월상의 복속

금곡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왜 기억하려 하는가이다. 금곡을 제대로 연주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지식이나 기교의 연마보다 금곡의 작자와 창작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조』는 「월상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월상조는 주공이 지었다.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니 월상이 통역을 거듭 거치면서 흰 평을 바쳤다. 이에 주공이 금을 잡고 “오호! 이는 단의 힘이 아니요, 문왕의 덕입니다!” 하고 노래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받아 문왕의 묘에 바쳤다.⁸⁾

『금조』는 주공을 「월상조」의 작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금조』에 기록된 작자란 금곡의 소재 즉 기억하고자 역사사건의 주인공을 가리킨다.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 주공은 무왕을 도와 은(殷)을 토벌하고 주(周)를 건국한 인물로, 무왕 사후에는 왕위를 계승한 성왕을 보필하여 국정을

6) 지난 10년간 ‘중국’ 연구 삼부곡(三部曲)을 출간하며 중국 학계에서 ‘중국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촉발한 대륙학자 거자오광(葛兆光)도 중국이 광활한 영토를 관할하면서도 다른 세계 제국들과 다르게 제도와 문화 및 민족이 동질적인 핵심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역사 기억의 전승을 통한 정체성(혹은 귀속감) 형성을 거론한 바 있다. 거자오광 지음, 김효민 등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19, pp.31-32.

7) 본문에 인용한 『금조』 원문은 淸(淸)의 왕모(王謨, 약1731-1817)가 고문헌에 남겨진 『금조』 항목을 추려 엄밀한 교정과 교차 검증을 거쳐 편집한 것으로 원본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 때 선본으로 간주되었던 『평진관총서(平津館叢書)』 판본은 고적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가짜와 진짜가 섞여있다. 王小盾·余作勝, 「从琴操版本论音乐古籍辑佚学」, 『音乐研究』, 2011年 第3期, pp. 54-64. 인용문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이 제공하는 『한위유서초』의 『금조』 원문을 사용하였다.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98468&page=40-82>.

8) 周公輔成王, 越裳重九譯而來獻白雉, 周公乃援琴而歌之曰, 於戲嗟嗟! 非旦之力也, 乃文王之德也. 遂受之, 獻於文王之廟.

운영하며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주공은 왜 월상에 관한 금곡을 지었을까? 아니 한인들은 주공과 관련된 허다한 사건 중 하필 왜 월상에 관한 사건을 기억하고자 했을까? 양한 시기 관련 서술과 기록들을 살펴보자.

월상은 주의 통치권 밖의 이민족으로 한초 유가적 통치이념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던 육가(陸賈, 기원전240-기원전170)의 『신어(新語)』에 처음 등장한다.⁹⁾ 개국 공신들과 흉노의 위력에 포위당해 제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한 고조 유방에게 진시황의 폭력과 형벌에 의한 천하 통일이 아닌 주공의 예악과 제사를 통한 천하 통합의 길을 제안하면서 월상의 중역래조를 거론한 것이다.¹⁰⁾

육가에 의해 소환된 월상의 중역래조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상서대전(尙書大傳)』과 『한시외전(韓詩外傳)』을 통해 연속된 시간 속에 편입되며 인과관계가 분명한 실재한 역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상서대전』에 따르면, 월상의 방문 전에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¹¹⁾ 일명 ‘가화(嘉禾)’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세 줄기에서 하나의 이삭이 난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 또한 이례적으로 거대했다. 이를 본 주공은 천하 화합의 징조라 여겼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월상이 중국을 방문했다. 월상은 교지(交趾)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과는 전혀 교류가 없어 여러 차례의 통역을 거쳐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처음에 주공은 주의 통치권 밖의 세력에게는 조공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으나, 폭풍과 장마가 사라진 것을 중국의 성인 덕분이라고 여기는 월상에 감격하여 그들의 선물을 종묘에 올리도록 허락한다. 관속과 채속 형제들의 반란을 경험한 주공에게 월상의 방문은 의미심장했다.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한 섭정에 대한 보상이자 천하 화합을 알리는 위대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시대전』에서도 『상서대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말미에 『詩經』 「下武」편 마지막 구절 ‘만년토록 어찌 하늘의 도움이 없으시리?(於萬斯年, 不遐有佐)’를 추가 인용하였다. 「下武」편을 주공의 덕치로 인한 성왕 시대의 사회안정과 평화국면을 찬미한 작품으로 해석하며 가화 사건과 월상의 중역래조를 그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써 월상의 중국방문은 『시경』의 권위까지 획득하며 확고부동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월상의 중역래조는 ‘가화사건’과 분리되어 실재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기원전 81년 염철(鹽鐵)회의에 참가한 문학과 현량들은 월상의 중역래조를 거론하며 무력정벌을 옹호하는 어사와 대부들에 맞서 덕치에 의한 천하 통

9) 「無爲」: 周公制作禮樂, 郊天地, 望山川, 師旅不設, 刑格法懸, 而四海之內, 奉供來臻, 越裳之君, 重譯來朝. 육가 지음, 장현근 옮김,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p.35-36.

10) 장현근, 「지식기반의 왕도정치: 육가 신어와 통합의 정치사상」, 『정치사상연구』, 제13집 제2호, 2007년 가을, pp.91-92.

11) 伏勝 撰, 鄭玄 注, 陳壽祺 輯校, 『尙書大傳』, 中華書局, 1985, p.86.

치를 주장하였고, 원제(元帝, 기원전48-기원전32) 때 남월(南越)에 설치했던 주애군(珠崖郡)에서 격렬한 반란이 발생하자 가의의 증손 가손지(賈損之)는 월상의 중역래조를 거론하며 무력 공격의 부당함을 설파하였다.¹²⁾ 한편, 월상의 중역래조 고사가 실재한 역사 사실이자 상식으로 민간에 널리 확산되자 이를 정권 찬탈에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름 아닌 전한을 멸하고 新을 세운 王莽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정적을 몰아내고 정권 찬탈의 기초를 다진 후 마지막 화룡점정으로 월상의 ‘중역래조’를 재현함으로써 유례없는 무혈혁명을 성취하였다. 당시 조정 대신은 왕망을 주공에 비유하며 그를 칭송하였고, 왕망은 모든 공을 황태후에게 돌려 황태후의 이목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얻어냄으로써 권력 행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였다.¹³⁾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인들은 월상의 자발적 복속은 덕치의 결과이며, 그 공로는 주공에게 있다고 믿었다. 어떤 문헌에도 주공이 금곡을 지었다는 기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월상조」가 주공의 창작이라고 믿으며 연주하고 감상했다. 그 이유는 물론 주공 때문이다. 주공은 군왕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악을 제정하고 성왕을 보필하여 평화적 천하통일을 달성한 인물이다.¹⁴⁾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포부를 지닌 양한 문사들에게 주공은 최고의 본보기상이었다. 문사들은 주공에게서 관계에 진출하여 황제를 보필하며 천하를 통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월상조」는 희망의 노래인가? 그렇지 않다. ‘조(操)’는 본래 근심과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짓는 금곡을 말한다.¹⁵⁾ 월상의 자발적 복속에 주공이 근심했을 리 없으니, 근심과 걱정은 당연히 「월상조」를 타는 당시 문사들의 마음 상태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무제시기를 제외하면 양한 시기 내내 통치하는 중국과 복속하는 이민족이라는 전통적 세계관은 실현된 적이 없었다. 특히 동한 정권은 변란을 단속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채,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나날이 추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상조」는 덕치와 평화공존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를 희망하는 문사들의 절망감을 해소하고 평정심을 되찾게 하는 위로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⁶⁾

12) 「和親」: 王者中立而听乎天下, 德施方外, 绝国殊俗, 臻于阙廷, 凤皇在列树, 麒麟在郊薮, 群生庶物, 莫不被泽 …… 周公修德, 而越裳氏来. 桓寬 著, 『鹽鐵論』, 中華書局, 1991, p.144.

「嚴主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 越裳氏重九譯而獻, 此非兵革之所能致. 『漢書』권64下, p.2831.

13) 김택민,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 朝貢·冊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歷史學報』, 제213집, 2012, pp.266-271. 오만중, 「王莽의 禪讓 政權」, 『중국학』, 제61집, 2017.12. pp.67-69.

14) 이승률은 선진 문헌에서 주로 유덕자로 기술되던 주공이 양한을 거치면서 학술적 정치적 이유로 예악제정자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두 얼굴의 주공」, 『동양고전연구』, 제75집, 2019, pp.31-64.

15) 憂愁而作, 命之曰操, 言窮則獨善其身而不失其操也. 郭茂倩, 『樂府詩集』권57, 「琴曲歌辭」, pp.821-822.

2) 「기산조」: 융적의 야욕과 대왕의 시련

기산(岐山)은 주 태왕(혹은 대왕) 고공단보(古公亶父) 즉 주공의 증조부가 선조들이 거주하던 저칠(沮漆)의 물가 즉 빈(豳 혹은 邠)땅을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이다. 『시경』 「면(縣)」편은 고공단보가 기산에 정착하여 도읍을 건설하고 관리를 선임하는 등 국가적 면모를 갖추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시인은 고공단보가 기산이주 후에도 융적에 대한 노여움을 사치지 못했다고 서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산 이주를 언급하기 곤란한 굴욕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굴욕적 사건은 맹자에 의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재해석된다. 맹자는 대국의 무력침략을 걱정하는 등문공에게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 땅이 아닌 백성임을 일깨우기 위해 태왕 즉 고공단보의 기산 이주를 소개한다.¹⁷⁾ 이후 기산이주를 결단한 고공단보는 적인의 야욕에 맞서 백성을 지켜낸 ‘仁人’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서한의 사마천은 『시경』과 『맹자』를 비롯한 선진 제자서에 흠어진 고공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여 주의 기원 서사를 완성하였는데, 고공단보를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구해낸 민족 영웅이자 융적의 습속을 청산하고 화하적 통치를 개시한 인물로 서술하였다.¹⁸⁾ 기산 이주를 기점으로 주나라 사람들이 정착하여 농경에 힘쓰고 인의를 숭상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6)은 기산이주를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고공단보의 결단으로 해석하였다. 이민족으로부터 사직을 지킨다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삼는 당시의 제후들과 달리, 땅을 융적에게 넘기고 홀로 떠난 대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땅이란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미다. 그는 고공단보의 어진 마음에 감화되어 기산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빈 땅의 백성보다 다섯 배나 많았다고 기산 이주의 성공을 극찬했다.¹⁹⁾

16) 동한 말 응소(應劭, 153-196)의 『풍속통의(風俗通義)』나 채옹(蔡邕, 133-192)의 「금부(琴賦)」에 여전히 ‘주공월상(周公越裳)’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동한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梁惠王下」: 滕文公問曰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乃屬其耆老而告之, 曰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二三子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人曰, 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如歸市.

18) 「周本紀」: 古公乃貶戎狄之俗, 而營築城郭室屋, 而邑別居之. 作五官有司, 『史記』권4, p.114.

19) 「至公」: 諸侯之義死社稷, 大王委國而去, 何也? 夫聖人不欲強暴侵陵百姓, 故使諸侯死國守其民. 大王有至仁之恩, 不忍戰百姓, 故事勸育戎氏以犬馬珍幣, 而伐不止. 問其所欲者, 土地也. 於是屬其群臣耆老, 而告之曰“土地者, 所以養人也, 不以其所以養而害其慈也, 吾將去之.” 遂居岐山之下. 邠人負

그렇다면, 금곡 「기산조」는 어떤 노래일까? 『금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한다..

대왕이 빈 땅을 떠나 기산에 도읍을 정했다. 이적에게 침략을 당한 것을 스스로 괴로워하여 한숨 쉬며 탄식하다 금을 안고 두드리며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용적이 쳐들어와 터전을 옮기네, 도읍을 옮기려 기산으로 찾아왔지. 백성들은 걱정 없네, 누가 알랴! 아! 어찌하여 나의 운명 이렇게 되었을까! 20)

기산 이주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언급이나 대왕의 인의정치에 대한 찬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용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했던 고공단보의 고뇌와 분노를 노래하고 있다. 『詩經』 「邶」편의 용적에 대한 노여움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고공단보의 모습과 중첩된다. 금곡은 왜 대왕의 정치적 업적이 아닌 정치적 시련에 주목했을까? 한인들에게 고공의 시련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인들은 서주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잘 알고 있었다. 기원전 771년 서쪽 이민족 중 한 파인 건융의 침입때문이었다. 유왕(幽王)은 살해되고 수도는 함락되었다. 주나라는 낙읍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과거 기산이주와 같은 대반전은 없었다. 그 후 무제가 대대적인 흉노정벌을 단행하고 조정이 지속적인 서진정책 추진하면서 한인들은 또 다시 서쪽 이민족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융’이라는 호칭 대신 그들을 ‘강(羌)’이라 불렀다. 그들은 물과 초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목축을 주업으로 하였지만, 중국으로부터 배운 농업도 병행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우두머리가 없이 여러 종족들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필요에 따라 대립하기도 연대하기도 하였다. 무제는 흉노의 세력을 무력화 시키는 과정에서 흉노의 오른팔이었던 강족을 그들의 근거지인 황중 보다 훨씬 서쪽에 위치한 서해와 염지 부근으로 축출했다. 이후 소제(昭帝, 기원전86-74년 재위)는 강족의 근거지였던 황중과 그 주변 지역에 금성군(金城郡)을 설치하여 점령된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고 한인을 이주시켰고, 서기 4년 왕망(王莽)은 금성군의 서쪽 변경 지대인 서해 일대 강족들의 땅에 서해군을 설치하고 범법자들을 대거 이주시켰다.²¹⁾ 한인이 원주민인 강족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고공

幼扶老從之，如歸父母。三遷而民五倍其初者，皆興仁義趣上之事。君子守國安民，非特門兵罷殺士眾而已。不私其身惟民，足用保民，蓋所以去國之義也，是謂至公耳。劉向 撰，임동석 역주, 『說苑』, 동서문화사, 2009, pp.1460-1461.

20) 大王去邠而邑於岐山，自傷爲夷狄所侵，喟然歎息，援琴而鼓之作。操曰，狄戎侵兮土地移，邦邑適於岐山。烝民不憂兮誰者知？嗟嗟奈何兮，予命遭斯！

21) 김영진, 「중국 제국형성 시기 대외관계와 군현화 전략 - 匈奴와 羌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제28집, 2012, pp.111-119. 왕명가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2008, p.330-358.

의 기산이주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한의 공격적 영토 확장은 한을 풍요와 번영이 아닌 혼란과 쇠망의 길로 몰아갔다. 한의 변경 내로 이주한 강족들은 자신들의 습성과 문화를 고수하였고, 변경지역 한인 관리들은 강족들의 특성은 무시한 채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강족과의 상생안 모색보다 강족에 대한 근절안 강구에만 몰두한 것은 서쪽 이민족과의 굴욕적인 역사기억에 대한 강박적 반응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곡「기산조」는 동한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기산이주 고사를 대왕의 업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했던 서한 시대와 달리, 이민족에 대한 혐오, 불안, 공포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노출하여 서쪽 이민족과의 굴욕적 역사기억을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3) 「주태백」: 구오를 교화한 태백

금곡 「주태백(周太伯)」은 『平津館叢書』의 『금조』에는 보이지만, 본 논문이 저본으로 선택한 『漢魏遺書鈔』의 『금조』에는 보이지 않는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양한 시기 금곡 「주태백」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양한 시기 태백 고사가 유행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통해 「공후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기』 「오태백세가」에 의하면, 태백은 태왕 즉 고공단보의 맏아들로 마땅히 후계자가 되어야하나, 태왕이 셋째 아들 계력과 손자 창(훗날 文王)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자 아우 중옹(仲雍)과 함께 주를 떠나 형만(荊蠻)으로 달아났다. 형만 지역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스스로를 구오(句吳)라 부르는 태백과 중옹을 의롭게 여겨 그를 따랐다. 그리하여 태백은 뜻의 시조가 되었으니, 화하의 입장에서 구오는 태백의 교화를 입은 후예였던 것이다. 태백 고사는 다른 역사 고사처럼 끊임없이 반복 기술되었다. 예를 들어, 동한 趙曄의 『吳越春秋』의 경우, 고공단보가 죽자 태백과 중옹이 돌아와 장례에 참여했으나 또다시 왕위를 사양하고 형만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平津館叢書』 『금조』가 수록한 태백고사는 『사기』보다는 『오월춘추』와 더 유사하며, 거기에 노래가사도 추가하였다.

22) 『평진관총서』의 『금조』는 『태평어람』 권571에 기재된 남조 진(陳)의 사지장(沙智匠)이 편찬한 『고금악록(古今樂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고금악록』에 소개된 허유(許由)의 금곡 「기산지가(箕山之歌)」는 이미 『문선주』에서 『금조』의 수록곡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서술방식으로 『고금악록』에 소개된 계력(季歷)의 금곡 「애모지가(哀慕之歌)」인데, 교차검증 없이 『금조』의 내용으로 판단하고 ‘하간잡가’의 한 편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왕모는 이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태백이 오로 달아났다는 기록은 과연 사실일까? 다수의 학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 헤매지만, 대만의 역사학자 왕밍커(王明珂)는 오히려 과거 중국인들이 왜 이러한 사회적 기억을 남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²³⁾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그들은 왜 태백이 오로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그 사실을 대를 이어 기억하려 했을까?

이는 전형적인 화하화 전략이다. 춘추시기 주나라와 주의 제후들은 종족·문화·정치 등을 기준으로 세계를 양분하고, 자신을 ‘하(夏)’ 또는 ‘화(華)’로 부르며, 자신들과 다른 상대인 ‘이(夷)’와 구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화이관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춘추에서 전국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하의 지리적 변경에 있던 이민족들이 화하 문화를 대량으로 흡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화하 세계의 정치 구도 속으로 편입되었다. 물론 문화적·정치적 발전만으로 화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화하 국가를 능가하는 전투력과 경쟁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국가들의 종족 정체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변경 국가들의 화하 선조에 대한 기억 되찾기 작업이었다. 화하로서도 조상의 잃어버린 후예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그들을 ‘적’이 아닌 ‘아’로 둔갑시켜 화하 세계로 맞이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전쟁의 부담도 줄이고 권위의 실추도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오나라뿐 아니라 월(越)·초(楚)·진(秦) 모두 상층 통치계급이 화하의 선조를 찾아내거나 빌려와서 화하 종족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 ○○로 달아났다’는 식의 화하화(華夏化)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달아났다는 집단 기억이 있었지만, 조선의 경우 단군 혹은 동명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기억하였다.²⁴⁾ 중국은 조상의 잃어버렸던 후손들을 되찾았다고 선언했지만, 조선은 오히려 원래의 조상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고수한 것이다. 난감해진 중국은 무력 통합에 의한 제도적 복속을 시도하였지만, 이 방법은 대단히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었다. 방법의 전환이 필요했다. 중국이 시도한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금곡「공후인」을 통해 확인해보자.

4) 「공후인」: 남편을 따라간 조선 여인

『금조』에 소개된 금곡 「공후인」에 대한 배경고사는 다음과 같다.

23) 왕밍커(王明珂)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2008, pp. 359-406.

24) 박대제,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제65호, 2016, pp.11-18.

공후인은 조선진에서 부역하던 껍리자고가 지은 것이다.²⁵⁾ 새벽에 자고가 샷대로 배를 밀어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한 미친 사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아내는 그를 쫓아가 말리려 했으나 미쳐 말리지 못하고 사내는 강에 빠져 죽었다. 이에 하늘에 소리치며 공후를 두드리며 노래하는데 “그대 물에 들어가지 마요. 그대 물에 들어가 버렸구려. 그대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나는 어찌란 말이오!”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자고가 듣고 슬퍼하며 금을 잡고 그것을 두드리 공후인을 지었는데, 그 소리를 본뵈었다. 그것이 공무도하라고 하는 곡이다.²⁶⁾

조선 여인이 불렀다는 노래 「공무도하가」는 조선 중기 이후에야 조선에 알려졌지만, 중국에서는 일찍이 일종의 문학전통으로 자리잡으며 인기를 누렸다.²⁷⁾ 그 이유에 대해 혹자는 인간의 애절한 정감의 솔직담백한 표현으로 혹자는 동양적 여필종부관의 영향으로 분석한다.²⁸⁾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수많은 중국 여성들의 교훈적인 사연을 제쳐두고 굳이 이민족 여인의 노래가 유행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껍리자고는 왜 백수광부 처의 노래를 금곡으로 리메이크했으며, 당시 한인들에게 「공후인」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공후인」의 창작배경이 된 ‘조선진’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 ‘조선진’의 위치 비정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금곡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팩션(Faction) 즉 허구의 혹은 상상의 역사기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진’의 위치보다 그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배경고사에 의하면, ‘조선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 즉 ‘화(華)’와 ‘이(夷)’가 혼재하는 공간이다.²⁹⁾ ‘피발’과 ‘공후’는 백수광부 부부가 타문화에 속한 사람

25) ‘朝鮮津卒霍里子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연구자들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필자는 ‘조선진의 졸 껍리자고’로 이해하고 이를 조선진에 부역나온(卒) 껍리자고로 해석하였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성진의 「〈公無渡河歌〉의 작자와 창작공간에 대한 문헌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46집, 2017.02. pp.93-119 참조.

26) 箜篌引者, 朝鮮津卒霍里子高所作也. 子高晨刺船而濯. 有一狂夫, 被发提壺而渡. 其妻追止之, 不及, 墮河而死. 乃号天嘘唏, 鼓箜篌而歌云 公无渡河, 公竟渡河, 公墮河死, 当奈何! 曲终, 投河而死. 子高援琴作其歌聲曰箜篌引.

27) 성범중,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전승 일고 - 설화의 의미와 시가의 결구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제26호, 2018, pp.5-51.

28) 구본현, 「공무도하가에 나타난 仁의 형상」, 『고전문학연구』, 제51호, 2017, 김영수, 「공무도하가 신해석: ‘백수광부’의 정체와 ‘피발제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3집, 1998.

29) 전통 시기 중국과 주변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강역은 있되 경계는 없다(有疆無界)’는 전통 중화제국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다. ‘중국’과 ‘주변’은 모두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것으로 현대민족국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이나 부락의 잡거는 제국의 주변부뿐 아니라 구주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현상이었다. 거자오광 지음, 김효민 등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19, p.22, pp.38-39.

임을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이다. 풀어헤친 머리 모양을 말하는 피발은 한족의 속발이관(束髮而冠)과 대비되는 이민족의 습속으로 문화적 혐오감을 내포하는 중화중심적 사고의 표현이다.³⁰⁾ 백수광부의 처가 사용한 공후는 중국의 고유의 악기인 금슬(琴瑟)과 구별되는 지터류의 악기와 하프류의 악기를 포함해 외부에서 들어온 악기를 총칭한다. 즉, 광리자고는 ‘화’를, 백수광부와 그의 처는 ‘이’를 대표한다.

무슨 사연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민족 남성이 강을 건너다 빠져 죽었고, 이를 말리지 못한 그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따라 물에 뛰어들어 죽는다. 광리자고는 백수광부의 죽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여인이 죽기 직전 공후를 뜯으며 절규하듯 부른 노래였다. 이민족의 악기 공후의 선율을 타고 울리는 낯선 가락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고통과 슬픔이 온전히 느껴졌던 것이다. 감정을 소유한 인간이라는 동질감이 다른 문화라는 이질감을 극복하는 순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놀랍게도 여인이 남편을 따라 강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는 정절과 예법을 중시하는 ‘화’의 여인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

중국인에게 조선은 중국의 동북부와 인접한 지역을 거점으로 활약하는 이민족을 의미한다. 조선은 다른 이민족들과 달리 정착하여 농사짓고 군주에게 통일된 사람들로, 중국인들은 줄곧 자신들과 공통점이 많은 조선과의 경계를 없애길 희망했다. 대만학자 왕밍커(王明珂)는 기자 전설, 사군현의 설치, 고구려 등 동북 여러 나라에 취했던 관대한 변경 정책은 중국인들이 조선을 내지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분석했다.³¹⁾ 그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에 더해 필자는 금곡 「공후인」의 창작과 유행 역시 조선에 대한 내지화 혹은 화하화(華夏化)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거자오광(葛兆光)은 중국이 거둬드는 왕조 교체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안정적이면서도 방대한 ‘중국’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바탕에 제도, 문화, 사회의 유기적인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³²⁾ 일시적으로 중국의 제도에 편입되어도 문화적 공동체로 거둬나지 않으면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무력적 통일이나 제도적 통솔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문화적 동화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꽤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문화적 다수가 소수에 대해 먼저 수용적이며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금곡 「공후인」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편을 따라간 조선여인의 노래 「공후인」은 조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래된 고정관념과 경계심을 떨쳐버리고 조선을 예의를 아는 민족

30) 김영수, <「公無渡河歌」신해석: ‘白首狂夫’의 정체와 ‘被髮提壺’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 1998.06. pp.18-19.

31) 왕밍커(王明珂)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2008, pp.436-439, pp.420-424.

32) 거자오광 지음, 김효민 등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19, pp.82-93.

으로 재인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³³⁾

5) 「곽장군도하조」: 평화를 염원한 곽거병

곽장군이란 무제 시기 흉노 공략 30년 역사에서 기념비적 전공을 세운 곽거병(霍去病, 기원전140-기원전117)을 말한다. 그는 『사기』 「위장군표기열전(衛將軍驃騎列傳)」 속 18인의 장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한이 흉노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화친에서 강경으로 전환한 것은 무제 때부터다. 문경지치(文景之治, 기원전179-기원전141)를 거치며 지방의 제후세력은 축소되었고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되어, 사회는 안정되고 국력은 크게 신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문제시기부터 추진한 조착(黿錯, 기원전200-154)의 국방 개혁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여 흉노의 침입에 대항할 군사적 군비적 조건도 구비된 상태였다. 게다가 화친을 명분으로 막대한 조공물자를 보내고도 변방의 평화를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자, 무제가 무력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³⁴⁾

18세의 나이로 무제에게 발탁된 곽거병은 기원전 121년 1만 기병을 이끌고 농서를 출발해 천 리 밖 언지산을 넘어 흉노를 공격하였고, 그해 여름에는 다시 곽거후·공손오와 함께 수만 기병을 이끌고 농서와 북지 북쪽 2천 리 되는 곳까지 침투하였다. 이들은 기련산에서 흉노와 전투하여 3만 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거병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선우에게 목이 잘릴 뻔한 혼야왕과 휴도를 비롯한 흉노의 수장 31명의 항복을 받아내고 아군 부상자 하나 없이 10만 흉노 무리를 귀순시켰다. 이로써 농서와 북지, 하서 지역은 흉노의 기습에서 해방되었으며, 과거 흉노가 차지했던 황하 남쪽 신진중(新秦中) 지역은 이제 중국인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그 후로도 흉노가 도발을 멈추지 않자 기원전 119년 무제는 전군을 동원한 대원정에 착수한다. 이 원정의 빛나는 주인공 역시 곽거병이었다. 그는 대군(代郡)에서 2천 리가 넘게 진격하여 흉노의 좌현장과 교전하여 적군 7만명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다.³⁵⁾ 이후 흉노는 북방 초원으로 물러갔고 북방 변경은 안정을 찾았으며, 고비 사막 남쪽에는 더이상 흉노의 조정(朝廷)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표기장군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철갑으로 무장한 한의

33)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한대 사람들은 조선을 예의를 아는 민족으로 여겼으며, 이는 중국에서 간 기자 덕분이라고 생각했다.(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p.1658.

34) 니콜라 디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오랑캐의 탄생』, pp.312-320.

35) 김영진, 「중국 제국형성 시기 대외관계와 군현화 전략 - 匈奴와 羌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제28집, 2012, pp.102-105.

병사들은 국가의 영토와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전쟁영웅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였고, 무제는 무릉 근처에 기린산을 본뜬 분묘까지 만들어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였다.³⁶⁾

그렇다면 금곡 「곽장군도하조」는 곽장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금조』의 기록을 살펴보자.

곽장군도하조는 거병이 지은 것으로, 가사는 “사방 오랑캐를 이미 정복했으니 화하의 모든 족속이 평안을 얻으리라. 국가에 걱정이 없으니 즐거움 끝이 없네. 방패와 창을 거두고 화살도 창고에 넣어두자. 기린이 찾아오고 봉황이 날아오네. 하늘과 더불어 서로 지켜주니 영원히 끝이 없으리. 서로서로 평생 사랑하며 천수를 다하자!”이다. ³⁷⁾

전쟁 영웅 곽거병을 기억하고자 한 것은 지속되는 변란을 종식하고 평화를 보장해 줄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는 문사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금곡 가사 속 곽거병의 이미지가 역사서의 곽거병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위장군표기열전」은 곽거병을 병사들의 상태나 병법의 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승리에 갈급해 있으며, 흉노를 멸절하기 전까지는 집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과감하다 못해 치기와 무모함마저 느껴지는 인물로 묘사했다.³⁸⁾ 중국형 용장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랑캐형 맹장에 가깝다. 반면, 금곡이 기억하는 곽거병은 압도적 전투력이나 기록적 전공을 세운 전장 속 전방 영웅의 모습이 아니다. 전장에서 돌아와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도래를 기뻐하며 평범한 삶에 대한 희망을 기원하는 보통 사람처럼 보인다. 전장의 경험이 없는 문사들에게 곽장군은 전쟁 영웅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던 것이다. 이는 문사들의 관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족의 소탕보다 사직의 안정과 백성의 안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6) 「원광사유가」: 자살을 선택한 왕소군

금곡 「원광사유가」는 왕소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금곡이다. 주지하다시피, 왕소군은 한족과 주변 이민족 간 갈등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그러나 왕소군에 관한 『한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왕소군은 황제의 후궁으로, 선우의 연지로 호의

36) 「衛將軍驃騎列傳」: 驃騎將軍自四年軍後三年, 元狩六年而卒. 天子悼之, 發屬國玄甲軍, 陳自長安至茂陵, 為冢象祁連山. 『史記』권111, p.2939.

37) 霍將軍渡河操, 去病之所作也. 歌曰四夷既獲, 諸夏康兮. 國家安寧, 樂無央兮. 載戢幹戈, 弓矢藏兮. 麒麟來臻, 鳳凰翔兮. 與天相保, 永無疆兮. 親親百年, 各延長兮!

38) 「衛將軍驃騎列傳」: 天子嘗欲教之孫吳兵法, 對曰“顧方略何如耳, 不至學古兵法.” 天子為治第, 令驃騎視之, 對曰“匈奴未滅, 無以家為也.” 『史記』권111, p.2939.

호식하며 안락한 삶을 누렸던 여인이다.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왕소군에 대한 이미지는 『한서』가 아니라 『금조』에서 발견된다.

『금조』는 왕소군을 세상 누구보다도 불우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녀의 불우함은 원제의 총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녀의 기구함은 그녀가 선우의 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금조』의 기록은 눈여겨볼 만하다.³⁹⁾

소군은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세위다. 선우가 죽자 세위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원래 오랑캐들은 부친이 죽으면 모친을 부인으로 삼았다. 소군은 세위에게 물었다. 너는 한인이 되고자 하느냐 오랑캐가 되고자 하느냐? 세위가 답하기를 “오랑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군은 이에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선우는 그녀를 안장하였다. ⁴⁰⁾

왕소군의 아들 세조가 오랑캐의 풍속에 따라 왕소군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왕소군은 이를 거부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설명은 사실무근이다. 『한서』가 한인 왕소군에 대해서는 출생 신분과 궁내 직분 및 이름만 언급한 것과 달리, 연지 왕소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⁴¹⁾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왕소군은 호한사 선우의 부인이 되어 ‘영호연지’로 불렸으며,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 이도지아사(후일의 우일축왕)를 낳았다. 이후 호한사 선우가 병으로 죽자 대연지에게서 낳은 조도막고가 선우의 자리를 계승하는데, 복주루 선우가 된 조도막고는 흉노의 법도에 따라 계모 왕소군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두 딸을 얻었다. 흉노의 전통인 수계혼(受繼婚)의 대상에서 생모는 제외된다. 한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⁴²⁾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왕소군을 기구하고 불행한 여인으로 서술한 것에서 이민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혐오와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형과 기후 등 비교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화이(華夷)를 구분했던 서한 초 문사들과 달리, 동한의 문사들은 이민족에 대해 주관적이며 부정적인 평가를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고는 『한서』 「흉노전」에서 이민족을 탐욕스럽고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얼굴에 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묘사하며, 교화가 통하지 않으니 중국에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쳐도

39) 『금조』에 수록된 「원광사유가」 관련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중간에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전반부는 주로 왕소군의 후궁 생활, 후반부는 연지 왕소군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소개이다. 拙稿, 「금곡 원광사유가의 주제와 동한 왕소군 고사 탄생 및 유행의 시대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제63집, 2021.09, pp.285-288.

40) 昭君有子曰世違, 單於死, 世違繼立. 凡爲胡者, 父死妻母. 昭君問世違曰“汝爲漢也, 爲胡也?” 世違曰, “欲爲胡耳.” 昭君乃吞藥自殺.

41) 「匈奴傳」: 王昭君號寧胡閼氏, 生一男伊屠智牙師, 爲右日逐王. …… 復株鞮單于復妻王昭君, 生二女, 長女云爲須卜居次, 小女爲當于居次. 『漢書』 권94, pp.3806-3807.

42) 「匈奴傳」: 父死, 妻其後母, 兄弟死, 皆取其妻妻之. 『漢書』 권94, p.3743.

짐승을 다루듯이 고삐만 잡고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⁴³⁾ 금곡「원광사유가」는 반고와 같은 동한인들의 화이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한인들이 금곡「원광사유가」를 통해 공유하던 이민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미지가 흉노에서 서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왕소군을 소재로 한 「원광사유가」에 난데없이 서강을 언급한 가사(“翩翩之燕, 遠集西羌”)가 등장한 것에서 감지할 수 있다.⁴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제의 대규모 무력 정벌이후 내부 권력 투쟁을 겪은 흉노는 남북 두 세력으로 분열되어 더이상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반면 서강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서쪽 변경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동한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지속되던 서강과 한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중원 지역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겼다. 桓帝초 유행한 동요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다. “밀은 파릇파릇하고 보리는 누렇게 익었는데, 누가 나가 거두나? 시어미와 며느리뿐이네. 남편은 어디 있나? 서쪽으로 오랑캐와 싸우러 갔네.(小麥青青大麥枯, 誰當獲者婦與姑, 丈人何在西擊胡.)”⁴⁵⁾ 동한 말, 채염(蔡琰)의 「비분시(悲憤詩)」역시 서강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노래하였다(平土人脆弱, 來兵皆胡羌). 서강과 흉노는 기원과 문화, 사회구조 및 경제생태 면에서 엄연히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종족이지만, 한인에게는 모두 혐오스러운 문화와 미개한 생활습관을 가진 오랑캐에 불과했다. 흉노의 수계혼 전통을 거부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던 「원광사유가」의 주인공 왕소군과 자식의 애원과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귀향을 선택한 「비분시」의 주인공 채염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 대한 모정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한인들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은 것은 물론이며 이민족과의 잡거로 인해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3) 「匈奴傳」: 夷狄之人貪而好利, 被髮左衽, 人面獸心 …… 政教不及其人, 正朔不加其國, 來則懲而御之, 去則備而守之. 其慕義而貢獻, 則接之以禮讓, 羈靡不絕, 使曲在彼, 蓋聖王制御蠻夷之常道也. 『漢書·匈奴傳』권94, p.3834. 이춘복, 「중국 전통시대 中華와 夷狄를 식별하는 구성요소 試論」, 『중앙사론』, 제41집, 2015, pp.171-174.

44) 王作良은 이를 작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판단한 遼欽立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는 왕소군 고사가 역사 기록이 아닌 문학 작품이라는 반증으로 작자의 의도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王作良, 「『琴操』與昭君題材的文學化進程」, 『寧夏大學學報』, 2007.07, pp.37-42.

45) 서성 역주, 『양한시집』, 보고사, 2007, pp.139-140.

3. 나가는 말

선진의 문화전통이자 양한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금곡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금곡이 기억하고자 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현실의 문제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양한 문사들은 금곡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이상과 가치관을 세상과 공유함으로써 치자(治者)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풍속 교화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양한 시기 유행했던 금곡 중 이민족과의 역사기억을 소재로 한 금곡을 대상으로 역사기억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 반영된 한인의 화이관 및 정치이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금곡을 통해 본 이민족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는 그 대상에 따라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융적의 야욕으로 인한 대왕의 시련을 노래한 「기산조」와 이민족으로 살기를 거부하며 자살한 왕소군의 노래 「원광사유가」에서 이민족은 흉포하고 야만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융적과의 굴욕적인 역사기억에 더해 양한 시기 내내 변방을 위협했던 흉노와 서강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금곡이 기억하는 동북 이민족과 남방 이민족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광리자고를 감동시킨 백수광부 처의 노래 「공후인」에서는 조선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감추지 않았는데, 이는 화하 스스로 조선에 대한 문화적 거리감과 심리적 경계를 완하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주의 덕치와 월상의 복속을 노래한 「월상조」는 통치하는 중국과 복속하는 이민족이라는 전통의 화하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영웅 광거병의 전장의 활약상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노래한 「광장군도하조」에서는 변란을 종식하고 평화를 보장해 줄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면서도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 해결법을 선호하는 문사 특유의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漢]司馬遷 撰, 楊家駱 主編, 『新校本史記三家注』, 臺北, 鼎文書局, 1980.
- [漢]班固 撰, 顏師固 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7.
- [漢]蔡邕 撰, [清]孫星衍 校, 『琴操校本』, 續修四庫全書『平津館叢書影印本』
- [漢]蔡邕 撰, [清]王謨 輯佚, 『琴操』, 『漢唐遺書鈔本』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98468&page=40-82>.
- [劉宋]范曄 撰, [唐]李賢 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3.
- [宋]郭茂倩編, 『樂府詩集』, 臺北, 里仁書局, 1981.
-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1981.
- 거자오광 지음, 김효민·송정화·정유선·최수경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 ‘중국’과 ‘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19.
- 김한규, 『천하국가 -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소나무, 2005.
- 니콜라 디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2005.
-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사기』, 민음사, 2015.
- 서 성 역주, 『양한시집』, 보고사, 2007.
- 왕명가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08.
- 홍승현, 『사대부와 중국 고대 사회 - 사대부의 등장과 정치적 각성에 대한 연구』, 해안, 2008.
- 히하라 도시쿠니 지음, 김동민 옮김, 『국가와 백성사이의 漢·한 제국, 덕치와 형벌의 이중주』, 글항아리, 2013.
-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臺北, 木鐸出版社, 1988.
- 王 力, 「兩漢時期西羌內遷淺析」, 『青海民族研究』, 2004.07.
-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논문>

- 김성진, 「〈公無渡河歌〉의 작자와 창작공간에 대한 문헌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46집, 2017.02.
- 김영수, 「『公無渡河歌』신해석: ‘白首狂夫’의 정체와 ‘被髮提壺’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가 연구』, 3, 1998.06.
- 김영진, 「중국 제국형성 시기 대외관계와 군현화 전략 - 흉노와 강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8집, 2012.02.
- 김택민, 「중국고대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 朝貢·冊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歷史學報』, 제213집, 2012.03.
- 구본현,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仁의 형상」, 『고전문학연구』, 제51호, 2017.06.
- 박대제,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제65호, 2016.
- 성범중,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전승 일고 - 설화의 의미와 시가의 결구를 중심으로」, 『

韓國漢詩研究』, 제26호, 2018.10.

오경환, 「집단 기억과 역사: 집단기억의 역사적 적용」, 『亞太 쟁점과 연구』, 2007가을호.

오만중, 「王莽의 禪讓 政權」, 『중국학』, 제61집, 2017.12.

유혜영, 「한유 <琴操十首> - 창작배경과 소통전략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83호, 2013.12.

_____, 「《琴操》의 편찬 동기와 사회문화적 가치」, 『중국문화연구』, 25집, 2014.08.

_____, 「금곡 〈원광사유가〉의 주제와 동한 왕소군 고사 탄생 및 유행의 시대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제63집, 2021.09.

이승률, 「두 얼굴의 주공」, 『동양고전연구』, 제75집, 2019.

장현근, 「지식기반의 왕도정치: 육가 『신어』와 통합의 정치사상」, 『정치사상연구』, 제13집 제2호, 2007년 가을호.

홍승현,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제31호, 2011.03.

【논문초록】

| | | | | | | |
|---|--------------------------|--|-------|-------------|-------|-------------|
| 키워드 Key Words | 중문 | 琴曲, 華夷觀, 四夷, 政治 理想, 歷史記憶, 琴操 | | | | |
| | 영문 | Lyra song, Sinocentrism, Other ethnic group, Political ideology, Collective memory, Guem-Cho | | | | |
| <div><div><div><div><div><div>A Study on the Collective Memory and Political Ideas of the Chinese People with focusing on Lyra song</div><div>Yu Hey-Young</div></div></div><div><div><div><div><div><div>Lyra Song, which is cultural tradition of pre-Chin Dynasty era and a symbolic form of poetry representing Han Dynasty, is essentially a work of remembering historical characters or events of the past. The characters and events that Lyra Song wants to remember are closely related to the actual issues, and Han writers tried to exert their social influence, which was cultural edification, by sharing their political ideals and values with the world through Lyra Song. This paper explored the political ideals of literary writers reflecting the Sinocentrism through lyra songs based on historical memories with other ethnic groups. They adhered to the Chinese-centered worldview of the Chinese ruling subjugated immigrants, and expressed obsessive anxiety and disgust at the ongoing dispute with the immigrants and the identity crisis caused by mixed residence. It also hoped for the emergence of heroes who would end the rebellion and ensure peace, but tended to prefer gradual assimilation based on cultural similarities to armed integration with the immigrants. While Chinese played and appreciated Lyra Song, they utilized it as a mean to promote national pride and cultural superiority.</div></div></div></div></div></div></div></div></div> | | | | | | |
| 저 자 | 유혜영 / 柳惠英 / Yu Hey-Young | | | | | |
| 논문작성일 | 투 고 일 | 2023.02.10. | 심 사 일 | 2023.03.06. | 게재확정일 | 2023.03.20. |